

# 오늘의 주요기사

2022 11 14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The logo for the Gangwon Provincial Assembly, featuring three overlapping colored shapes (green, blue, orange) containing the words '섬기는' (serving), '일하는' (working), and '가까운' (close).

江原日報	21	“	”						1
江原日報	02	"					"		2
江原日報	12	1,000	.		ITS				3
江原日報	03	“	.				”		4
강원도민일보	04	.	,						5
강원도민일보	03	"		5		...		...	6
江原日報	03		“		3	1		...	7
G1방송			,			..			8
연합뉴스			"					...	9
KBS 춘천				800		...		[1/2...	10
KBS 춘천				800		...		[2/2...	11
국민일보		[	]	6641		年		15 ....	12
국민일보		[	]	6641		年		15 ....	13
강원도민일보	26								14
江原日報	14								15
江原日報	15								16
江原日報	10A								17
강원도민일보	01	'							18
江原日報	02			' 8	8,620				19
江原日報	03					2,050			20
江原日報	03	野	'					...	20
江原日報	04				'10				21
江原日報	01								22
江原日報	23			FC					23
江原日報	19	[	]	가	,			...	24
江原日報	18	[	]	가	가				25
강원도민일보	22	[	]						26





◇제24회 교산허균문화제 개막식 및 허균문학작가상 시상식이 지난 12일 강릉시 초당동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에서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박영봉 교산·난설헌선양회 이사장, 권혁열 도의장, 김기영 강릉시 의장, 최기용 도 문화관광국장, 김종욱 강릉부시장을 비롯해 제14회 허균문학작가상 수상자인 송지현 소설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권태명기자

## “허균 선생 문학혼 잇는 수작 뜻깊어”

### 제14회 허균문학작가상 시상식

‘제14회 허균문학작가상 시상식’이 지난 12일 강릉 허균·난설헌기념공원 생가 앞에서 교산 허균문화제 개막식과 함께 열렸다.

강원일보와 (사)교산·난설헌선양회가 주최한 시상식에는 소설집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을 펴낸 송지현 작가가 수상해 상패 및 1,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김도연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송지현의 소설들은 삶에서 힘을 뺏 때와 힘을 줄 때의 묘한 어긋남과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며 “좋은 소

설로 많은 독자를 기쁘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지현 작가는 수상소감에서 “꿈을 꾸 후 수상 소식을 들었고, 앞으로 글을 쓰는 자신을 더 칭찬해 주고 싶다”고 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수준 높은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돼 기쁘다”며 “수상자들의 글과 말에서 허균 선생과 강릉의 이름이 더욱 드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4회 교산허균문화제는 이날 시상식을 시작으로 13

일까지 교산허균 학술세미나와 교산허균 백일장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박영봉 (사)교산·난설헌선양회 이사장은 “허균 선생은 시대를 앞서가신 불멸의 선각자이자 문학자, 개혁적인 사상가였다”며 “앞으로도 교산 허균의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화제 개막식에는 권혁열 도의장, 김기영 강릉시의장, 김종욱 강릉부시장, 최기용 도 문화관광국장, 김진희 권성동 국회의원 부인 등 각급 기관·단체장과 양천허씨 종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강릉=최영재기자

# “농촌 어려움 함께 해결해 강원 농업 미래 밝히자”

## 도 농업인대상·기업형 새농촌 마을 시상식

제42회 강원도 농업인대상 및 기업형 새농촌 마을 시상식이 지난 11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강원일보사와 강원도가 공동 주최한 이날 시상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권혁열 도의장,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심영근 운영위원장, 김기철 경제산업위원장, 박호균 최중수 도의원, 김용욱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김형숙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장, 김진휘 도 농정국장, 김창전 도 농정특보, 임상현 도농업기술원장 등이 참석해 농업인대상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수상자 프로필 21면  
올해 농업인대상의 영예는 작물경영 부문 김동길(양양)씨, 친환경농업 부문 평창가농영농조합법인(대표:백승진·평창), 수출·유통 부문 김병근(강릉)씨, 축산발전 부문 김은호(철원)씨, 미래농업육성 부문 김명준(양양)씨, 농촌융복합산업 부문 박성현(고성)씨 등 6명에게 돌아갔다.

이날 함께 열린 2022 기업형 새농

촌 마을 만들기 시상식에서는 춘천시 신북읍 천전2리, 원주시 문막읍 공촌마을 등 8곳이 도약마을로 선정됐다.

올해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 시상식에서는 춘천시 신북읍 천전2리, 원주시 문막읍 공촌마을 등 8곳이 도약마을로 선정됐다. 춘천시 북산면 조고2리, 강릉시 상산면 금산1리, 삼척시 근덕면 동막4리,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영월군 주천면 도전2리는 선도마을 상을 수상했다.

김진태 지사는 “농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원도 농업 지원액을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하려고 한다. 농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모든 물



◇2022 강원도 농업인대상 시상식이 지난 11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권혁열 강원도의회장,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김기철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김용욱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김형숙 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장 등 참석인사들과 농업인대상 수상자,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수상마을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승선거자

가가 오르고 있는데 쌀값만 하락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인들과 회로에 락을 함께해 온 강원일보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강원도 농업 환경은 농촌 일손 부족, 쌀값 폭락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큰데 농민들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의회가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한편 강원도 농업인대상과 기업형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지난 42년간 강원 농어업의 미래를 선도해 왔으며 앞으로 농어업의 미래산업화를 견인할 최고 권위의 상이다.

1981년 강원도와 강원일보사가 함께 농어업인대상을 제정해 올해 42회째 수상자를 배출, 농업 선진화의 산실 역할을 해 왔고 지난해부터 농업인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특히 올해는 ‘농촌융복합산업’ 부문을 신설해 6개 부문으로 확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심은석·최기영기자

# 1,000여명 시민·관광객 ITS 총회 성공 염원

본보 주최 시민함께걷기  
경포호수·선교장 일대서

‘2022 강릉바우길 시민 함께걷기’가 지난 12일 지역 대표 관광명소인 경포호수와 선교장 일원에서 시민·관광객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걷기 좋은 포근한 가을 날씨 속에 강릉시의 2026년 ITS세계총회 유치를 기념하고 시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염원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블루비치 색소폰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허균·허난설헌기념공원, 선교장, 시루봉, 경포호수 등으로 이어지는 천혜의 명품 숲길



◇2022 강릉바우길 시민 함께걷기가 지난 12일 시민·관광객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참가자들이 바우길을 걷고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과 호수길을 만끽했다.

참가자들은 완주하면서 올 9월 미국 LA컨벤션에서 최

종 결정된 2026 ITS세계총회 유치를 환영하고 총회 성공 개최를 통해 세계 100대

관광도시로 진입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오 늘처럼 주민들이 아름다운 바우길을 걸으며 건강을 챙기고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바우길 24개 코스를 명품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일보 주최, (사)강릉바우길 주관, 강릉시·강릉시의회·강릉시체육회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걷기행사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권혁열 도의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김기영 강릉시장, 손호성 강릉시체육회장, 김진희 권성동 국회의원 부인, 목정은 전 (사)강릉바우길 이사장 등이 참석, 시민들을 격려했다.

강릉=최영재기자·오현우인턴기자

# 江原日報

2022 11 14 ( )  
03

## “강원도립대 실습선 노후 학생 안전·경쟁력 우려”

김용복 도의원 “국비 확보 노력”

강원도의회가 강원도립대의 노후화된 실습선의 대체 건조를 위한 국비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의회 김용복(고성·사진) 농림수산위원장은 지난 11일 강원도립대 관계자들과 현안을 논의했다. 도립대는 해양경찰과 내 항해전공 학부생들의 현장실습을 위해 2016년 부경대로부터 중고 선박을 인수했으나 노후화로 학생들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열악한 승선 환경으로 교육의 질 및 해양기사 양성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대학구조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해양경찰과 (항해전공) 신입생 모집이 2018년부터 중단된 상황이다. 김용복 위원장은 “국립대의 국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강원도립대(공립)에는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도내 유일한 해양경찰과의 존치 및 확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습선 건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기획행정위원회와의 예산 협조와도 국회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이하늘기자

# 강원도민일보

2022 11 14 ( )  
04

## 농림수산물·도립대, 실습선 노후화 지원방안 논의

### 학부생 현장실습 안전문제 지적

김용복(고성·사진) 강원도의회 농림수산물위원장이 강원도립대와 간담회를 갖고, 도립대의 실습선 노후화에 따른 대체 건조 필요성을 밝히며 지원 방안 등을 모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도의회에서 도립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립대 노후실습선 대체 방안, 2018년부터 중단된 해양경찰과 신입생 모집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1일엔 실습선이 정박해 있는 속초항을 방문해 실습선 상태 등을 점검했다. 11일 간담회



에선 해양경찰과 내항해전 공학부생들의 현장실습을 위해 중고선박을 인수했으나, 실습선의 노후화로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우려되

는 점, 신입생 모집 중단으로 해양기사 양성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점 등이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도내 유일한 해기 양성소인 해양경찰과의 존치 및 확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습선의 건조가 필요하다”며 “도의회 소관 상임위, 도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내년도에 설 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설화

# 강원도민일보

2022 11 14 ( )  
03

## 강정호 “도 어업지도선 5개월 방치…대체 건조 국비지원을”

강정호(속초·사진)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동해안 어업지도선 노후화로 5개월째 근무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대체 건조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수산자원 보호, 불법어업 지도·단속, 해난사고 발생시 사고선박 수색에 투입되는 도내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로 인해 5개월째 근무에 투입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해 접경지역은 ‘국가사무’ 구역임에도 도 어업지도선이 어떠한 국비지원 없이 임무를 대행하고 있



다”며 “현재 어업지도선 2척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도민 안전을 위해 선박 건조까지 국가어업지도선이 무조건 대체 투입돼야 한다”고 했다.

또, “그간 국가사무를 대행함에도 관리비 등 예산을 늘 도가 부담했다”며 “대체건조에 들어가는 40억원 예산은 국비 지원의 보상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대체 건조비용이 약 4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설화 lofi@kado.net

## 江原日報

2022 11 14 ( )  
03

### 강정호 도의원 “도 어업지도선 3척 중 1척 출항 못 한 채 방치”

강원도가 보유한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로 출항조차 못 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정호(속초·사진) 강원도 의원은



지난 11일 “불법 어업 지도, 단속과 해난사고 발생 시 사고 선박의 예인 및 수색, 구조에 투입하는 강원도 어

업지도선 3척 가운데 1척이 노후화로 인해 5개월째 근무에 투입하지 못한 채 방치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동해본부에 확인해 보니 올 7월 안전진단 결과 수리 비용 과다 소요에 따른 대체 건조에 약 40억원이 필요하다”며 “국가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심은석기자

2022 11 11 ( )

G1방송

## 강정호 도의원, 어업지도선 노후화..대책 시급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강원도가 보유한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로 인해 수개월째 운항을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강정호 강원도 의원은 "도가 소유한 3대의 어업지도선 중 강원 201호가 노후화돼 5개월째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어업 지도·단속과 사고선박의 예인과 수색, 구조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 어업지도선이 대체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전진단 검사 결과 수리비용이 과다 소요돼 대체 건조비용 40억 원이 필요한 만큼,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 11 11 ( )

 연합뉴스

## 강정호 도의원 "도 어업지도선 노후화로 출항도 못 해"

(춘천=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도가 보유한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로 출항조차 못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도 어업지도선  
[강정호 의원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11일 강정호 강원도 의원은 자료를 내고 "불법 어업 지도, 단속과 해난사고 발생 시 사고 선박의 예인 및 수색, 구조에 투입하는 강원도 어업지도선 3척 가운데 1척이 노후화로 인해 5개월째 근무에 투입하지 못한 채 방치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동해본부에 확인해보니 지난 7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안전진단 결과 수리 비용과다 소요에 따른 대체 건조에 약 40억원이 필요하다"며 "국가어업지도선 대체 투입 및 선박 건조 비용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도 의원은 또 "서해 특정 해역은 국가 어업지도선이 투입되지만 같은 상황의 동해 접경 해역은 같은 국가사무 임에도 강원도 어업지도선이 국비 지원 없이 임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momo@yna.co.kr

## 레고랜드 800억 원 지원 논란...배임 우려 제기



[앵커]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에 지급한 투자금 800억 원을 두고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은 최문순 전 도지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 그리고 레고랜드 운영사인 영국 멀린사는 2018년 말,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위한 총괄개발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중도공사는 투자금 800억 원을 멀린 측에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 투자액이 배임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중도공사가 800억 원을 투자한 대가로, 레고랜드 코리아는 투자금만큼의 테마파크 관련 자산을 중도공사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공사는 이를 다시 레고랜드에 빌려주고 임대 이익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애초 임대 수익률이 30%에서 총괄개발협약 때는 1/10 이하인 3%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상 이익을 포기한 채 돈을 퍼 줬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기홍/강원도의회 부의장 : "거의 대부분의 수익을 포기하고, 도의 재산과 그리고 중도개발공사의 재산에 명백하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이 투자로 강원도와 중도공사가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받기로 한 투자금 800억 원어치 테마파크 관련 자산을 아직 안 받은 겁니다.



2022 11 11 ( )

강원도와 중도공사는 레고랜드 관련 자산에 대한 임대 수익이 낮은 상태에서, 이것을 받아오면 취득세와 법인세 등 세금 등으로 50억 원가량이 더 지출될 것으로 예상돼, 안 가져오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김경율/공인회계사 : "어떤 자산들이 이와 같은 매각·매수의 대상인 지 하나, 불분명하고요. 두 번째는 이 금액이 언제 어떤 형태로 갔는지 이것도 불분명하다."]

이런 문제점은 이미 강원도와 중도공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총괄개발협약 전 중도공사는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자문받았습니다.

[송상익/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지난 9일 : "이 배임 시(상황)가 생겼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임 시가 아닐 조건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강원도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이장주

박성은

# 국민일보

## [단독] 강원도 6641억 들이고 年수익 많아야 15억... 밀빠진 레고랜드

말 많은 수익구조 들여다보니...  
 땅 무상임대 주차장까지 지어주고  
 임대료 수입 등 수익률 0.2% 불과



연합뉴스

###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업 손익 구조

투자액	예상 수익
6641억원	임대료 수입 연 최대 1억8000만원
	주차장 임대료 연 12억7000만원
	소계 14억5000만원
수익률 연 0.2%	
*부지 100년 무상대여는 투자액에서 제외 〈자료: 강원도의회〉	

2022 11 14 ( )

## 국민일보

레고랜드 사업에 66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하는 강원도가 챙길 수 있는 최대 수입이 연 15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률로 따지면 고작 연 0.2% 수준이다.

국민일보가 강원도의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GJC), 강원도개발공사가 춘천시 하중도에 들어선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주변 인프라 개발 사업에 투입했거나 앞으로 투자해야 할 총액은 6641억원이다. 강원도가 국·도·시비를 포함해 2099억원을 들여 춘천역과 하중도를 잇는 춘천대교, 수변생태공원 등을 짓고 GJC는 4542억원을 부담해 테마파크 건설 등을 맡았다. 강원도개발공사는 116억원(임시 주차장 조성비 포함)을 들여 4000대 규모의 주차장까지 지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부지를 100년간 무상 임대하기도 했다. 50년 무상 임대 후 그 기간을 50년까지 추가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은 레고랜드 사업 파트너인 영국 멀린엔터테인먼트 측에 있다는 것이 강원도의회의 설명이다.

이런 투자 비용을 들이고 강원도가 가져갈 이익은 최대 연 14억5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GJC가 받을 테마파크 임대료 수입 최대치 1억8000만원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챙기는 주차장 임대료 12억7000만원이 기대수입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강원도와 GJC, 멀린은 테마파크 임대료 수입을 연 매출액에 따라 정하기로 계약했다. 연 매출액이 400억~600억원이면 4800만원을, 600억~800억원이면 1억2000만원을, 800억원을 초과하면 1억8000만원을 받는다. 만약 연 매출액이 2000억원을 넘기더라도 임대료 수입은 1억8000만원이 최대치다.

강원도는 향후 10년간 테마파크 연 입장객 수가 200만명을 웃돌 경우 1인당 1달러를 추가로 받기로 했지만 이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관광업계 추정치에 따르면 테마파크 개장 첫 달인 지난 5월에 13만명이 다녀갔지만 6월에는 10만명, 7월에는 7만명으로 감소세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멀린과 2013년 10월 본협약(UA)을 맺을 때만 해도 수익성이 나쁘지 않았다. UA에서는 GJC가 사업비 2300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테마파크 연 매출액의 8~10%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기로 했었다. 그러나 양측이 UA를 2018년 12월 총괄개발협약(MDA)으로 바꾸면서 계약 조건이 나빠졌다.

사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재정예 문제가 생긴 GJC가 투자금을 23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1500억원 줄이고 멀린 측 자금을 더 끌어오면서 임대료 수익률이 대폭 낮아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강원도의 레고랜드 총투자금액은 당초 8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은 “국비를 포함해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간 레고랜드 사업의 수익률이 처참할 정도로 낮다”면서 “이런 불공정 계약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 강원도민일보

2022 11 14 ( )  
26



**사랑의 끈 연결운동 강원도대회** 2022년 사랑의 끈 연결운동 강원도대회가 최근양구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서흥원 양구군수, 이기찬 도의회부의장, 박귀남 양구군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江原日報

2022 11 14 ( )  
14



**동해시 선도 농업인대회** 동해시 선도 농업인대회가 지난 11일 북평동 전천 둔치에서 박재갑 대회장, 심규언 시장, 이동호 시의장과 시의원, 최재석 도의원을 비롯, 기관·단체장과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江原日報

2022 11 14 ( )  
15



**영월군 농업인의 날 기념식** 제44회 영월군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지난 11일 스포츠파크 체육관에서 열려 최명서 군수와 심재섭 군의장, 김길수 도의원, 박천희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군연합회장 등 참석자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 江原日報

2022 11 14 ( )

10A



**홍천강변 걷기축제** 홍천군은 지난 12일 홍천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유상범 국회의원,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 홍성기·이영욱 도의원, 최이경 군의회 부의장, 김광수·이광재·황경화 군의원, 박상록 군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홍천강변 걷기축제’를 개최했다.

2022 11 14 ( )  
01

## 강원도민일보

# ‘레고랜드발 금융 위기’ 여야 오늘 장외 책임공방전

민주당 조사단 오늘 춘천 방문  
김진태 지사 사태 책임론 부각  
국힘 국회서 관련 토론회 개최  
문재인 정부 방만 운영 강조

지난 10월 이후 한국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레고랜드 쇼크사태를 둘러싼 ‘쌍과방패’의 여론전이 1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원도와 국회에서 동시에 펼쳐진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發) 금융 위기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춘천을 방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와 도청을 찾아 이번 사태에 대한 김 지사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장외여론전에 나선다.

이에 맞서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 한기호·노용호·유상범·이양수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레고랜드 이슈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갖고 금융위기 근본적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국정운영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14일 오전 GJC 현장 방문과 도청에서 언론브리핑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조사단은 직권남용과 국고손실죄 등을 물어 김진태 지사를 형사고발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 방문

에는 국회 정부위 소속으로 김진태발 금융위기 조사단장인 김종민 의원과 위성근 원내수석부대표,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강) 의원 등 현역의원 6명, 도당에선 김우영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정재웅·이승진·이지영 도의원, 허소영·여준성 도당대변인 등이 함께한다. 허영 의원은 “김 지사의 잘못된 결정으로 촉발된 현재의 금융위기가 벌써부터 도미노 사태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김 지사는 진심어린 사과없이 전임정권·지사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강원도 관계자와의 면담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맞서 강원연구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레고랜드 이슈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한기호·노용호·유상범·이양수·윤주경 의원 등과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지난달 말 국회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지장 위기 대응’ 긴급 토론회의 대응차원이다. 토론회에선 김병현 한국관광진흥학회 회장이 ‘레고랜드 유치의 명과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 ‘최근 채권시장 경색, 레고랜드 회생신청 때문인가’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한다. 야권에서 제기된 김 지사 책임론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금융권발(發) 이슈가 정치권 이슈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강원도민의 이익’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든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자체의 역할과 선진적 금융시스템에 대한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레고랜드 쇼크사태를 둘러싼 여론전이 재점화된 것과 관련, 도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정치권, 그리고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의 치열한 논리싸움등이 한층 격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세훈

## 도 내년 예산안 '8조8,620억' 편성 역대 최대

첨단산업 육성 2,000억 투입 등 올해보다 4,860억 증가  
레고랜드 사업 보증채무 2,050억 추경안도 도의회 제출

반도체 산업 육성, 맞춤형 복지 확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윤곽이 나왔다.

강원도는 지난 11일 8조8,620억원의 내년 당초예산안을 강원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8조3,760억원)보다 4,86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관련기사 3면**

도는 내년 당초예산안의 3대 목표를 △경제안정 △건전재정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으로 설정했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예산 40억원을 투입하고 원주 반도체교육센터 유치 등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 16억원을 비롯, 첨단 산업 육성에 2,187억원을 편성했다.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인 육아기 본수당은 내년 만 5세까지 확대해

169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도 현행 3만원에서 6만원으로 100% 확대해 100억원을 세웠다.

현재 50억원을 적립한 신청사 건립기금은 내년 6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2026년까지 매년 600억원씩 적립해 2027년 총 3,089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15일 이전에 상환할 레고랜드 조성사업 보증채무 2,050억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부 사업 삭감 및 세수 추가 확보 등의 자체 재원으로 1,05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1,00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한다. 지역개발기금은 채무로 잡히지는 않지만 1%대 저리가 붙고 10년 내 상환해야 한다.

‘임기 내 채무 60% 감축 계획’도 계속 추진한다. 강원도 채무는 총 1조243억원(레고랜드 조성사업 관련 우발채무 2,050억원 포함)으로 연내 총 2,942억원을 갚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물려줄 것인가, 풍요로운 경제의 기반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江原日報

추경 제출된 레고랜드 보증채무 2,050억 쟁점 예고

도의회 16일 예산안 심사

강원도의회가 오는 16일부터 김진태 도정의 첫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본회의에서 첫 시정연설에 나서 '여대야소' 지형으로 구성된 11대 강원도의회에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한다.

도의회는 이날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강정호)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본심사에 집중한다. 예결특위는

상환계획 꼼꼼히 따진다는 방침 "반드시 법리적 해석 받을 것"

도 내년 예산안 8조8천억 편성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강원도교육청이 4조1,428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앞서 강원도청은 지난 11일 8조8,620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강원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8조3,760억원)보다 4,860억원 증가했다.

특히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 공사를 추진해 온 중도개발공사의 보증채무 2,050억원이 이번 강원도의회 예산 심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는 레고랜드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상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추경예산으로 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부 사업 및 세수 추가 확보 등 자체 재원으로 1,06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1,00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강원도의회에서도 강원도정의 '기업회생신청' 결정에 대한 절차상 적법성 및 상환 후의 계획 등을 꼼꼼히 따진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전체 49명의 강원도 의원 중 43명이 김진태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의장단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이 채무보증액 상환 예산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는 향후 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변호인 판단 등 법리적으로 검토를 반드시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김기철)에서는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시제기 개발과 관련한 사업 적절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18일 현지시찰을 추진한다.

권혁열 강원도의회장은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의 첫 예산안인 만큼 11대 도의원 모두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강원도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실·국별 정책과 사업, 지역별 예산 배분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의회 제315회 정례회는 내달 9일까지 계속된다. 서울=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江原日報

野 '김진태발 금융위기 조사단' 오늘 김 지사 만나

도 현장점검 ... 일정 조율

속보=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發)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이 14일 강원도를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민주당 진상조사단장인 김종민 국회의원과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오기형 간사, 허영(춘천갑) 국회의원과 이성만·이용우 의원은 이날 오전 강원중도개발공사 사무실에서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한다.

이어 강원도청 관계자와 면담을 한 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는 김우영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과 정재웅·이승진·이지영 강원도의원, 허소영·여준성 대변인도 참석한다.

앞서 조사단은 올 10월27일 비공개로 첫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위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금융감독원을 방문, 이명순 수석부원과 과 현안 간담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조사단은 강원도 현장 방문을 통해 김진태 지사가 회생신청 절차를 밟게 된 상세한 경위와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김 지사와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성사되지 못할 경우 부지

사와 간담회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진상조사단 내부에서는 김 지사의 행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허영 국회의원은 "김 지사는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시장이 김 지사의 기업회생신청 자체를 채무보증 불이행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생신청 과정에서 절차상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행사고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 도내 소멸위기지역 ‘10곳’ 전국서 두 번째로 많아

강원도의 ‘지방소멸 위기’가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경지, 폐광지의 소멸 위기가 심각해 기업 유치에 필요한 ‘획기적이고 과격적인 기업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인구 증감률, 1인당 GRDP, 총사업체 대비 지식산업 비율 등 6개 지표로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하고, 전국 228개 시·군·구를 조사한 결과 ‘소멸위기지역(위험 및 우려)’은 전남이 13곳으로 가장

접경·폐광지역 가장 심각… 군부대 밀집 인한 착시효과 확인  
고성군 도내 유일 ‘소멸위험지역’… 기업 유치 인센티브 등 필요

많았고, 강원도가 10곳으로 그다음이었다. 경북과 경남이 각 9곳, 전북 6곳, 충북 3곳, 충남·인천·부산·경기 각 2곳 순이었다.

지방소멸 관련 지표는 기존에도 많았지만, K-지방소멸지수는 청년 인구를 유치·보유할 수 있는 지역의 첨단산업 경쟁력까지 측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결과 도내에서

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접경지, 폐광지로 드러났다. 군부대가 밀집해 합계출산율이 높은 접경지의 ‘착시 효과’가 확인됐다.

K-지방소멸지수가 0.5 미만인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9개 지역이 해당됐다. 도내에서는 고성군이 포함됐다. 고성군은 전국에서 6번째로 소멸 위기가 심각했다.

전국 50개 지역이 해당된 ‘소멸우려지역’(K-지방소멸지수 0.5-0.75 미만)에는 강원도에서 무려 9곳이 포함돼 있었다. 소멸 위기 정도가 심각한 지역 순으로는 화천, 정선, 평창, 양구, 삼척, 영월, 태백, 인제, 양양 등이었다. 동해, 속초, 홍천, 횡성, 철원은 소멸 위기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소멸선제대응지역(전국 57개 지역)’에 해당됐다.

산업연구원은 해결 방안 중 하나로 K-지방소멸지수에 기반해 단계별

인센티브 차등화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는 현행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하고 있지만 소멸위기지역은 기업활동이 영위되는 모든 기간에 걸쳐 법인세를 100% 면제해 주는 제도의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멸위기지역은 대부분 1차 산업(농림축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신산업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산업 고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2022 11 14 ( )  
01

江原日報

# 코로나 재유행에 다시 병상 부족사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말 확진자가 10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입원치료 병상 부족 현상까지 다시 나타나 이미 춘천의 두 대학병원에는 중환자 병상이 한 자리도 남지 않은 비상 상황에 직면했다.

13일 강원도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주말(12일) 도내 확진자는 1,570명으로 토요일 기준으로는 올 9월 3일(2,082명) 이후 10주 만에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았다.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도 1,801명으로, 한 달 전인 10월 셋째 주차 토요일 기준 768명에 비해 약 2.3배 증가했다.

병상 부족 현상도 재현되고 있다.

**주말 도내 1,570명 확진 한달새 2배 급증 ... 10주 만에 최고치 춘천 중환자 병상 동나 ... 道·보건복지부 긴급 추가 확보 나서**

13일 0시 기준 강원도 내에서 확보된 코로나19 중환자와 준중환자(증상이 덜 위급하지만 여전히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의 입원치료병상은 전체 69개 중 18개밖에 남지 않았다. 가동률은 73.9%로, 1주일 전인 11월6일 기준 59.4%에 비해 14.5%포인트 급증했다. 특히 춘천의 강원대병원과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중환자 병상은 한 자리도 남지 않은 채 모두 차 도내에서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대학병원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강릉아

산병원 2곳밖에 남지 않았다.

증상이 위중해지기 전 입원치료를 할 수 있는 '준중환자' 병상도 전체 29곳 중 24곳에 확진자가 입원해 단 5곳밖에 남지 않았고, 춘천 강원대병원에 설치된 4곳은 모두 차 있다. 이에 따라 춘천지역 중환자와 준중환자는 병원 입원치료를 위해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강원도는 보건복지부와 병상 확충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빠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협의를 이어 가고 있다.

각 의료기관에서 준비 기간이 필요한 데다 의료 인력 부족 등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우선 춘천과 원주에 6개 병상을 확충하고, 이후 약 20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다음주 중 복지부와 추가적으로 협의하고, 의료기관과도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3일 오후 6시까지 일일 신규 확진자는 강원도 내에서 976명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원주 259명, 춘천 217명, 속초 92명, 강릉 83명, 홍천 59명, 인제 37명, 평창 30명, 양구 23명, 영월 22명, 삼척·철원 20명, 태백·정선 19명, 횡성·고성 18명, 양양 16명, 동해·화천 12명씩이다. 박서화기자

# 江原日報

2022 11 14 ( )  
23

## 강원FC 신임 대표이사에 김병지 추천

속보=강원도가 지난 11일 열린 강원FC 이사회에서 강원FC 신임 대표이사(본보 지난 8일자 23면 보도)에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추천했다.

김병지 부회장은 1992년 울산 현

대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해 포항, 서울, 경남, 전남 등 K리그와 월드컵 국가대표로 활약했으며, 현재는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으로서 생활축구 및 저변 확대 분야를 담당하는 등 축구행정가로 활동 중이다. 권순찬기자

江原日報

2022 11 14 ( )  
/ 19

국비 추가 확보, 지역 정치권 성과 떠나 뭉쳐야

강원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8조7,758억원이 반영된 것에 이어 추가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도가 요청한 국비 중 SOC(사회간접자본)사업 분야는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932억원), 강릉~제진 철도(672억원), 포천~철원 고속도로(5억원), 속초~고성 고속도로(5억원), 광덕터널 도로(7억원), 춘천 서면대교(50억원), 국지도 86호선(동막~개야) 도로(48억원) 등 7개 사업이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김진태 도정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30억원)을 비롯

해 신약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30억원), 바이오 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20억원),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

성화(22억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또 양양국제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조성(100억원), 전기·수소차 핵심 부품 및 차량 안전성 기반 구축(45억원) 등 15개 사업 419억원에 대해 신규 및 증액 반영을 요청했다.

도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와의 ‘강원도 국비 확보 대책 간담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22개 사업 2,138억원의 추가 확보에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제는 강원도와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2023년도 간담회 초반부터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는 데 있다. 추가 국비 확보가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온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여야

없이 강원도당으로 뭉쳐야 한다”는 다짐을 무색게 했다. 예산 확보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겹으로는 국비 추가 반영을 위해 공조를 말하면 서도 ‘정치적 접근’으로 각개 전투를 하면 곤란하다.

강원도는 내년에 특별자치도 원년을 맞는다. 국비 추가 확보에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에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 물론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지역의

여야 정치권은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이 사안을 강원도의 사활이 걸린 국비 추가 확보 문제와 연계시키면 안 된다.

도, 미반영된 22개 사업 2,138억원 요청  
동서고속철도 932억원으로 가장 많아  
지역 국회의원들 여야 없이 협력해야

즉, 강원도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SOC가 확충돼야 한다. 특히 도는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완공을 위해 가장 많은 932억원을 추가 요청했다. 이 사업은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역대 대통령들의 강원도 1호 공약이었다. 그러나 당선되고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B/C)이 나오지 않아 번번이 좌절됐다.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이 4번의 예비타당성 조사 끝에 어렵게 이끌어낸 결과물이다. 정치적 이해 접근에 따라 국비 확보에 미온적이면 강원도 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처사다.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비 추가 확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강원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발언대

## 농업에 국가 미래가 달려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자 뿌리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 농업·농촌은 산업화를 위한 노동력과 먹을거리의 안정적 제공, 공산품 수출을 위한 농산물시장 개방 등 희생을 거듭 감내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해 온 게 사실이다. 농업은 국가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과제다. 대한민국의 농업환경은 기반이 미약한 탓에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사회적으로 농업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은 농촌에 젊은이를 찾기 어려운 결과를 낳았고, 정부 역시 농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고민의 흔적이 약해 보이는 것 같다. 한국의 식량자급률(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은 1980년 69.6%에서 2019년 45.8%로 40년간 23.8%포인트 감소했다. 이 가운데 양곡 식량자급률은 2010년 54.1%에서 2019년 47.7%로 10년간 6.4%포인트나 떨어졌다.

세계를 이끌고 있는 선진국치고 식량자급을 도외시한 나라는 거의 없

다. 미국, 영국, 스웨덴은 식량자급률이 100%가 넘으며, 프랑스는 무려 200%가 넘는 식량자급 국가다.

우리나라는 물론 지금 세계는 기후 변화, 에너지·자원의 문제와 식량 부족, 경제 불안 등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과 2008년, 2010년에 발생했던 멕시코와 필리핀, 이집트를 비롯한 20여개 나라의 소요사태의 근본 원인은 식량 부족이었다. 우리나라 역시 식량자급률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 ‘농업 예측은 신도 어렵다’는 말이 있듯 정책의 한계성은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대응으로는 반복되는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표적인 게 ‘채소가격안정제’다. 마늘·양파·무·배추 등 가격 변동이 큰 농산물에 대해 사전적 면적 조절, 출하 중지, 출하 조절 등 수급 조절을 통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채소가격안정제’에

참여 수급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10%에 불과하다. 일부 품목은 농가 참여율이 1%에 미치지 못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농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 국민의 삶터이자 쉼터인 우리 농촌의 100년 뒤 미래를 내다보면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농촌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고, 농업은 우리의 생명이다. 또 농업인은 우리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이다. 농촌과 농업을 지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최종원  
강릉농협 교1동  
영농회장



도민시론

박응석 연세대 글로벌엘리트 학부 교수

사과의 타이밍

저는 아침을 커피 한 잔과 함께 시작합니다. 가끔 제자들과 함께 마시기 위해 여러잔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카페에서 컵마다 음료의 종류를 펜으로 써 주거나 스티커를 붙여서 구분해 줍니다. 컵이 불투명하니 내용물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중에게 사건사고를 전하던 이전의 신문이나 뉴스들이 이런 불투명한 컵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사건사고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뉴미디어의 발달로 대중들이 사건을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미디어는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뉴스의 '즉시접속성'과 '투명성'은 사건 관련자들이 빠르게 입장을 표명하게 만들

고 있습니다. 뉴스가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당사자들의 늦장 대응은 이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다수 대중에게 더 느끼게 느껴지고 무책임하다는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고는 빨라야 하고 그 표현양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얼마전 이태원에서 너무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슬퍼하기도 전에 정부는 '참사'와 '희생자'라는 말 대신 '사고'와 '사망자'라는 이름을 고착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외신 회견에서 국무총리도 사고라는 뜻의 'incident'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국민 다수가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외신도 참사를 뜻하는 'disaster'로 보도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및 한겨레 등 일간지의 중문판기

사도 모두 참사라는 뜻의 '慘案'을 사용하는데 정부만 다른 프레임을 구축하려 하는 모습이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및 국민 정서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만 보여준 꼴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사망자'는 '죽은 사람'이고, '희생자'는 '희생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 해석을 의미적으로 보면 전자는 독립적이지만 후자는 관계적이라 원인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인지 법을 잘 아는 판검사 출신 대통령과 관료들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뉘앙스를 피하기 위해 해당 용어를 피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정부와 국민의 관계에 법정은 유를 사용하면 그것이 가져올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같은 아픔이 이후에 재발하지 않으려면 먼저 사고의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데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호와 정재승의 '쿨하게 사과하라'에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순간 법적 대가를 치르는 '법정의 논리' 때문에 기업이나 정부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자신을 방어할 논리를 찾는 데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론의 논리'도 고려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여론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자세를 통해 누그러지기 때문입니다.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도 정부가 여전히 '여론의 논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공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고령화를 새로운 기회로

월요마당

최규권  
한국은행 강원본부  
기획조사부장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고령화’는 온통 답답하게 하는 의제뿐이다.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률 하락, 연금과 의료비 측면의 부담, 노인 빈곤 등 고령화를 경제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이 낮아지고 수명이 늘어나면서 상수(常數)가 된 고령화를 경제 측면에서도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시점이 아닐까?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2년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한다. 고령인구 비중이 14%를 상회하는 것을 지칭하는 ‘고령사회’에 이미 들어선 것이다. 나아가 2025년에는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50년에는 그 수치가 4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이 현재 22.1%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47%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또한, 장수로 인해 인류역

사상 처음으로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보다 퇴직 후의 노후생활 기간이 길어졌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제활동 저하, 노인 고독 등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안정과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류가 아직 효과적으로 사용해 보지 못한 자원인 노인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고령인구의 구성도 바뀌고 있다. 「글로벌 고령화 위기인가 기회인가」(엠투이풀어빙)에서 전문가들은 문명의 산물인 장수를 보다 긍정적 시각으로, 새로운 기회로 접근하고자 주장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규모 면이나 지불능력 면에서 생산, 수요 모두에서 중요한 계층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즉 고령층이 가진 지적 자산, 경험을 생산활동에 더 오래 투입하여야 하며 자산, 소득에서 여유가 있는 고령층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장수 국가인 일본에서는 실제 나이에 0.8을 곱한 것을 자신의 나이로 인식한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서도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에 종사하는 시니어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실제로 이미 60세 이상의 취업자가 600만명을 돌파했다. 청년층 일자리 잠식 등으로 세대 간 갈등을 우려하지만 고령층의 생산활동 참여가 그에 따른 소비증가, 자녀의 부담 경감 등으로 이어져 모든 세대에 유익하다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또한, 자산과 소득이 있는 고령인구를 상대로 한 비즈니스가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다. 유통업계는 은퇴 이후 활발한 소비 및 여가 생활을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activesenior)의 매출 비중이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건강, 레저, 여행, 스포츠, 문화 등 우리나라의 시니어 관련 산업의 규모가 2020년 73조원에서 2030년에는 168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는 건강 친화적인 자연환경, 낮은 주거비용, 수도권 근접성 등으로 실버 비즈니스의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늘어나고 있는 고령인구를 상대로 한 비즈니스를 우리 지역 새로운 활로로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경제에서 비중이 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강원도의 잠재력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 노인인구 증가나 국가 전체의 고령화는 지역경제에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다.